

弘報室 : (02)  
6050-3602~5

\* 이 자료는 **1/13(月)자 夕刊부터**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 
- 통신, 인터넷 등은 **1/13(月) 06:00부터**

※ 문의 : 기업정책팀 강석구 팀장(6050-3461), 송승혁 과장(6050-3490)

### 외국계 기업 55% “韓투자환경 열악해”

- 대한상의 조사 ... 한국 투자환경 ‘열악’(55%) > ‘좋음’(45%)
- 기업 2곳중 1곳 “기업관련 입법 외국인투자에 부정적 영향” ... “한국 투자 축소 고려할 수도”(50%)
- 투자환경 열악한 이유는 ‘정책일관성 부족’(33%), ‘경제변수 변동성’(27%), ‘과도한 규제’(23%) 탓
- 가장 부담되는 입법은 ‘통상임금 등 노동입법’(35%) ... “피규제자와의 소통 부족이 문제”(39%)

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 과반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기조가 변화하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경제변수 변동성 등을 이유로 국내 투자환경이 열악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. 또한, 기업 2곳 중 1곳은 기업관련 입법이 지속될 경우 국내투자 축소를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.

대한상공회의소(회장 박용만)가 최근 외국계 기업 201개사를 대상으로 ‘한국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’를 실시한 결과, ‘국내 투자여건이 열악하다’는 응답이 55.2%로 ‘여건이 좋다’(44.8%)라는 답변보다 많았다고 12일 밝혔다.

<표>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외국계기업 인식

	좋음	열악	계
응답률	44.8%	55.2%	100.0%

최근의 투자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. 최근 3년간 투자매력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 ‘비슷하다’(47.3%)이 답변이 가장 많았으나, ‘매력도가 떨어졌다’(32.9%)는 답변이 ‘증가했다’(19.8%)는 응답을 웃돌았다.

국내 투자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외국계기업들은 그 이유로 '정책 일관성 부족'(32.5%)을 가장 많이 꼽았고, 이어 '경제변수의 변동성'(27.0%), '규제수준 과도'(23.4%), '노사갈등과 반기업정서'(10.8%), '교육 등 사회인프라 부족'(6.3%) 등을 지적했다.

반면 투자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업들은 '산업경쟁력'(43.3%), '우수한 인력'(32.2%), '중국시장 진출의 거점'(11.1%), '광범위한 FTA 영토'(6.7%), '생산기지로서 장점'(6.7%) 등을 이유로 들었다.

작년 대비 올해 외국인투자규모에 대해서는 '작년과 비슷한 수준'(56.7%)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'축소될 것'(29.4%)이라는 응답이 '증가할 것'(13.9%)이라는 답변보다 많았다.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'경기회복 불확실'(42.4%), '규제도입·투자환경 악화'(37.3%), '한국내 수요감소'(16.9%) 등이 지적됐다. <'기타' 3.4%>

최근 도입되었거나 도입 논의중인 기업관련 입법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'부정적 영향'(53.3%)을 가져오리라 예상했고, '별 영향 없을 것'이라거나 '긍정적 영향'을 끼칠 것이란 응답은 각각 32.3%, 14.4%로 집계됐다.

특히, '기업규제입법이 지속되면 한국에 대한 투자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'는 기업이 49.8%에 달해 과도한 기업관련 입법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나타났다. <'특별한 변화 없음' 44.3%, '경기회복시 투자를 늘릴 가능성' 3.9%, '투자철수 고려가능' 2.0%>

기업관련 입법중 가장 부담이 되는 입법으로는 '통상임금,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입법'(35.4%)을 첫 손에 꼽았고, 이어 '증세 등 조세입법'(28.9%), '영업시간 출점규제 등 유통관련 규제'(11.9%), '공정거래·하도급 규제'(10.4%), '화평법·화관법 등 환경규제'(10.4%) 등을 차례로 꼽았다. <'기타' 3.0%>

기업관련 입법의 문제점으로는 '피규제자인 기업과의 소통이 불충분하다'(39.3%)는 의

견이 가장 많았고 '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부족'(38.8%), '기업이 수용하기 어려울 만큼 한꺼번에 과도한 규제 도입'(19.9%) 등이 지적됐다. <'기타' 2.0%>

기업규제입법이 투자환경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'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 추진'(38.3%), '규제입법보다 사회 감시인프라 구축'(30.3%), '기업과 충분한 소통'(23.4%), '정책추진의 속도조절'(7.0%)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. <'기타' 1.0%>

외국인투자유치 중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'정책일관성 확보'(36.3%)가 꼽혔고, 이어 '규제완화'(27.9%), '인센티브 효율화'(22.9%), '주거, 교육환경 등 사회인프라 구축'(12.4%) 등이 제시됐다. <'기타' 0.5%>

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"외국인투자 중대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인데, 주요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작년 외국인투자 유치규모가 감소했다"고 밝히고 "이는 경제성장동력 중 하나가 약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인 만큼 노동, 조세 등 기업경영여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, R&D센터 등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규제개혁 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되어야 한다"고 말했다. 

< 조 사 개 요 >

- 조사기간 : 2013.12.20(금) ~ 12.30(월)
- 조사대상 : 외국계기업 201개사
- 조사방법 : 전화 및 팩스 조사